

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12월 28일

중국 회색소득의 실태와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



문의처: KIEP 북경사무소(hj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 ▣ 중국의 회색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합법적 소득인 백색소득(白色收入)과 비합법적 소득인 흑색소득(黑色收入)의 중간지대 소득으로 봄.

 - 회색소득은 주로 권력 부패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자원과 같은 독점성 업종과 희소성이 있는 토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함.
- ▣ 중국경제체제개혁기금회(中国经济体制改革基金会) 국민경제연구소(国民经济研究所)의 왕샤오루(王小鲁) 부원장이 『회색소득과 국민소득분배』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회색소득이 다시 화제가 되었음.

 - 보고서는 19개 성의 64개 도시 약 4,000여 가구의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 전국 주민의 실제소득을 추산하였음.
 - 2008년 전국 주민 가처분소득의 총액은 23조 2천억 위안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국가 통계국의 도농주택소득에 따라 계산한 14조 위안보다 9조 3천억 위안(음성소득)이 많으며, 경제 센서스에 근거한 국가통계국 자금흐름표의 가처분소득 17조 9천억 위안보다 5조 4천억 위안(회색소득) 높음.
 - 2008년 9조 3천억 위안의 음성소득과 5조 4천억 위안의 회색소득 증가속도가 2005~2008년간의 명목 GDP 성장속도를 추월함.
- ▣ 음성소득으로 인해 주민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함.

 - 도시주민 10%의 최고소득층과 10%의 최저소득층 가정을 비교하면 1인당 가처분소득은 국가 통계국의 공식소득 기준 23배에서 회색소득 기준 65배로 크게 증가함.

1. 회색소득의 정의

- 회색소득이란 일반적으로 합법적 소득인 백색소득(白色收入)과 불법적 소득인 흑색소득(黑色收入)의 중간지대 소득으로 보나 정확한 정의가 없음.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报告, 2010. 3. 5)중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처음으로 ‘회색소득 규범화’ 를 제기하면서 회색소득에 대한 정의가 논쟁이 된 바 있음.
- 자오상궈그룹유한회사(招商局集团有限公司) 이사장 겸 자오상(招商)은행 이사장인 친샤오(秦晓)는 회색소득은 대부분 지하경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제라고 함.
- 경제학자 리이닝(厉以宁)은 정부와 법률을 거치지 않은 소득을 회색소득이라고 함.
- 칭화(清华)대학 공공관리학원(公共管理学院) 쉬에란(薛澜) 부원장은 회색소득을 ①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인 소득으로 간접 또는 다른 형태로 획득한 일종의 뇌물과 ② 합리적이나 규범적이지 않은 소득으로 구분함.
- 항저우(杭州)사범대학 법학원 리안(李安) 부원장은 회색소득은 개인의 노동에서 온 것이 아니며 일부 공무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대부분 형법을 위반한 소득이라고 함.
- 현행 법률에 의하면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에 대한 최고 형량은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형량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회색소득이 오히려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함.
- 저장(浙江)대학 법학원 천신용(陈信勇) 교수는 회색소득은 일종의 허위개념으로 법률적으로 백색소득과 흑색소득 사이의 회색소득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을 위반한 소득에 대하여 관련 부처가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고 함.
- 회색소득은 권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금횡령, 뇌물 등과 관계가 깊음.
- 2006년 전국 4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5년 정부와 감독·관리부처의 관계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였나?’ 라는 질문에 19.8%의 기업 책임자만이 ‘없음’ 이라고 응답하고 ‘조금’, ‘비교적 많이’, ‘아주 많이’ 가 총 80.2%였다고 함.
- 그중 ‘비교적 많이’, ‘아주 많이’ 가 18.1%를 차지하였으며, 18.1% 중 채굴업이 35.2%, 전력가스 생산·공급업이 24.3%, 부동산업이 23%, 화학원료와 화학품 제조업이 24.2%

로 자원과 관련된 독점성 업종의 부정부패가 심각함.

- 회계심사부서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11개 성과 자치구에서 684억 위안의 토지전문자금이 아직 예산관리에 납입되지 않았고, 징수되어야 할 토지사용권 판매액 381억 위안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함.
- o 토지비준, 토지징수, 토지사용권 판매, 부동산개발 등과 관련된 권력을 가진 이들의 부패가 매우 심각하다고 함.
- o 한 예로, 2009년 중국 전국 도시의 상품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 비용과 세금을 합하면 1㎡당 2,500위안이지만 판매면적과 판매액에 따라 계산한 평균 판매가격은 약 4,500위안이라고 함. 이는 부동산 투자자가 필요한 토지를 얻기 위해 뇌물을 주고 그 비용을 부동산에 포함시켜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어 최종소비자가 그 금액을 부담하게 된 것임.
- 공공투자의 부패에서 온 회색소득은 중앙의 투자사업보다 지방의 투자사업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함.

2. 회색소득의 실태

가. 조사대상과 방법

- 중국경제체제개혁기금회(中国经济体制改革基金会) 국민경제연구소(国民经济研究所)의 왕샤오루(王小鲁) 부원장은 『회색소득과 국민소득분배』 보고서를 발표하였음.¹⁾
-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국 직할시를 포함한 19개 성²⁾의 64개 도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현재 통계국의 주택 샘플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대부분 고소득층의 실제소득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설문조사자들의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1) 『比较』(2010. 3), 「灰色收入与国民收入分配」.

2) 베이징, 상하이, 산둥, 장쑤, 저장, 광둥, 산시(山西), 허난, 후베이, 안후이, 장시, 랴오닝, 헤이룽장, 쓰촨, 충칭, 윈난, 산시, 간쑤, 칭하이.

- 총 4,909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설문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689개의 샘플과 일시적 경영손실로 인한 마이너스 소득 샘플인 25개를 제외한 4,195개 샘플을 이용함.
- 분석방법으로 집단비교법(分組比較法)과 모형분석법³⁾을 사용하여 엔겔지수와 소득수준 간의 관계를 수립하여 도시주민의 실제소득을 추산하였음.

나. 도시주민의 실제소득 추산

- 집단비교법과 모형분석법을 이용하여 도시주민의 실제소득을 추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1 참고).
 - 집단비교법과 모형분석법을 통해 얻은 최저소득층, 저소득층, 중저소득층의 추산소득은 국가통계국의 도시주민가정 조사 샘플을 통해 얻은 1인당 가처분소득(이하, 공식소득)보다 높지만 전체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음.
 - 그러나 중등소득층 이상 집단의 공식소득과 추산소득의 차이는 매우 큼. 그중 최고소득층의 경우 집단비교법은 약 16만 4,000위안, 모형분석법은 13만 9,000위안으로 각각 공식소득의 3.76배와 3.19배에 달함.

표 1. 집단비교법과 모형분석법으로 추산한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단위: 위안)

집단 ⁴⁾	집단비교법: 추산소득	모형분석법: 추산소득	공식소득
최저소득층	5,685	5,350	4,754
저소득층	8,646	7,430	7,363
중저소득층	13,392	11,970	10,196
중등소득층	20,941	17,900	13,984
중고소득층	29,910	27,560	19,254
고소득층	47,772	54,900	26,250
최고소득층	164,034	139,000	43,614
총 도시주민	35,462	32,154	16,885*

주: * 16,885위안은 각 집단 공식소득에 따라 가중평균법으로 계산한 것이며, 통계국이 공표한 평균소득은 15,781위안임.

자료: 『比较』(2010. 3), 『灰色收入与国民收入分配』.

3) 집단비교법과 모형분석법은 엔겔지수법에 속하는 방법으로 분석수단과 분석과정에 차이가 있음.
 4) 국가통계국이 매년 공표하는 도시주민 집단소득수치는 1인당 소득에 따라 전국 도시주민 가정을 7개 집단으로 구분함. 그중 최저소득층, 저소득층, 최고소득층, 고소득층은 각각 도시주민의 10%를 차지하며 중저소득층, 중등소득층, 중고소득층은 각각 도시주민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포비율을 구분하고 있음.

■ 대부분의 음성소득⁵⁾은 최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표 2 참고).

- 2005년⁶⁾과 2008년의 추산소득과 공식소득을 비교한 결과 2008년 고소득층에 대한 추산소득이 공식소득보다 훨씬 많았으며, 여전히 최고소득층의 소득 차이가 가장 컸음.
- 또한 공식소득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도시주민소득을 음성소득으로 간주하고, 음성소득이 전체 음성소득에서 차지하는 각 집단별 비중을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음성소득이 최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
- 음성소득의 약 62.2%가 최고소득층의 음성소득으로 고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음성소득이 도시주민 음성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함.

표 2. 2005년(집단비교법), 2008년(모형분석법) 추산소득과 공식소득 비교

집단	추산소득/공식소득	추산소득/공식소득	2008년 음성소득의 집단별 분포
	2005	2008	
최저소득층	99.1%	112.5%	0.4%
저소득층	101.8%	100.9%	0.0%
중저소득층	106.9%	117.4%	2.3%
중등소득층	114.0%	128.0%	5.1%
중고소득층	130.6%	143.1%	10.9%
고소득층	138.7%	209.1%	18.8%
최고소득층	337.6%	318.7%	62.5%
총 도시주민	177.7%	194.4%	100.0%

자료: 『比较』(2010. 3), 「灰色收入与国民收入分配」.

■ 음성소득과 도시주민의 소득 차이가 매우 크며 음성소득이 정상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표 3 참고).

- 공식소득에 의하면 2008년 도시 최고소득층 가정과 최저소득층 가정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9배 차이가 나지만 모형분석법을 이용한 추산소득에 따르면 각각 13만 9,000 위안과 5,350위안으로 약 26배 차이임(표 1 참고).
- 2008년, 전국 최고소득층 가정 10%⁷⁾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9만 7,000위안이고 전국

5) 보고서에서는 도농주택소득의 경우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한 것으로 추산소득과의 차액을 음성소득으로 봤으며, 경제 센서스의 가처분소득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전자보다 투명하다고 보아 그 차액을 회색소득으로 간주하였음.

6) 2005~06년 도시주민소득과 소비를 조사하여 2007년 『중국의 회색소득과 주민소득격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집단비교법만을 이용하여 2005년 도시주민의 가처분소득 중 4.8조 위안이 주민소득통계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음성소득임을 추산하였음.

7) 2008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보다 약간 적으며 도시주민 각 가정의 인구 역시 농촌주민보다 적으므로 도농 가정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 사실상 도시 20%의 최고소득층 가정이 전국 가정수의 10.3%를 차지

최저소득층 가정 10%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500위안으로 65배 차이가 남(공식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3배).

- 2008년 음성소득은 9조 2,600억 위안으로 2005년의 4조 8,500억 위안보다 약 1배 (91% 상승) 증가하였음. 2008년 명목 GDP가 전년동기대비 71.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그 증가속도는 GDP 증가율을 추월함.

■ 회색소득은 총 9조 2,600억 위안으로 추정

- 음성소득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식소득이 나타내는 농촌주민의 소득이 사실과 비슷하다고 가정할 후, 2008년 전국 주민 가처분소득을 산출하면 약 23조 2천억 위안으로 추산됨⁸⁾.
- 2008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총국민 가처분소득은 14조 위안이므로, 그 차액인 9조 2,600억 위안을 음성소득으로 간주한 것임.
- 공식소득에 의하면 2008년 전국 주민 가처분소득은 2005년보다 57.4%밖에 상승하지 않았고, 이는 GDP의 성장률보다 낮아 전국 주민 가처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8.4%에서 2008년 44.5%로 3.9%포인트 하락함.
- 즉 음성소득이 정상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표 3. 2005~08년 주민 소득의 변화

		2005년	2008년	증감폭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공식소득	11,100	16,885	52.1%
	추산소득	19,730	32,154	63.0%
도시인구(억 명)	-	5.6212	6.0667	7.9%
농촌 1인당 순소득(위안)	공식소득	3,537	5,171	46.2%
농촌인구(억 명)	-	7.4544	7.2135	-3.2%
전국 주민 가처분소득(억 위안)	공식소득	88,767	139,739	57.4%
	추산소득	137,275	232,372	69.3%
추산 음성소득(억 위안)	-	48,508	92,633	91.3%
GDP 총량(억 위안)	-	183,217	314,045	71.4%
GDP에서 전국 주민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공식소득	48.4	44.5	-3.9%p
	추산소득	74.9	74.0	-0.9%p
음성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26.5	29.5	3.0%p

자료: 『比较』(2010. 3), 『灰色收入与国民收入分配』.

하고 농촌 20%의 최저소득층이 전국 가정수의 9.3%를 차지하므로 도시 최고소득층 가정의 20%와 농촌 최저소득층 가정의 20%가 전국 최고소득층 가정 10%와 전국 최저소득층 가정 10%를 대표할 수 있음.

8) (추산한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 도시 인구)+(공식 발표된 농촌 1인당 순소득*농촌 인구)

다.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본 음성소득

- 왕샤오루 부원장은 국민경제와 관련이 깊은 저축과 소비,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을 통해 통계국의 공식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음성소득을 살펴봄.

1) 주민의 저축⁹⁾과 소비

- 직간접적으로 각종 투자에 사용되고 있는 총저축액의 규모를 추산하였으며, 그 액수는 11조 5천억 위안으로 예상됨(공식통계는 3조 5천억 위안).

- 2008년 통계자료의 도농 주민소득과 도농의 인구에 따라 도농 주민의 총저축액을 추산한 결과 3조 5,500억 위안이였지만, 2008년 전국 금융기관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총저축액은 4조 5,400억 위안으로 나타났다고 함.

- 2008년 상품주택 판매액은 2조 1,200억 위안(신축주택만 해당)으로 개인주택대출금 증가액 3천억 위안을 공제한 1조 8,200억 위안이 주민저축에서 온 것이라고 함.

- 2008년 규모 이상 민영공업기업의 소유자권익은 순수하게 1조 9백억 위안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기업소유자의 소득과 저축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함.

- 또한, 2·3차 산업에 대한 개인투자는 대략 2조 5천억~3조 위안으로 추정됨.

- 이 외에 기타 부분까지 종합하면 2008년 전 국민의 총 저축액은 소득통계수치에 근거하여 계산한 3조 5천억 위안이 아닌 11조~11조 5천억 위안이 될 것이라고 함.

○ 이는 2008년에 적어도 7조 5천억 위안에서 8조 위안의 국민음성소득이 소득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함.

- 주민소비통계는 주민소득통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누락되었지만, 그 정도가 상당하다고 함.

- 가구소비통계에 따르면 주민소비지출은 총 9조 4,600억 위안이지만, 만약 20%가 누락되었다고 추측한다면 주민소비가 약 2조 위안 과소평가된 것으로 과소평가된 저축과 합치면 2008년 실제 국민음성소득은 9조 5천억 위안에서 10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함.

9) 가처분소득과 소비 간의 차액으로 정의함.

○ 이는 모형분석법에 근거하여 추산한 음성소득 9조 3천억 위안과 비슷함.

2) 부동산 가격

■ 고소득층 가정의 약 1/3이 2채, 3채 혹은 더욱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고소득층 주민의 실제소득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음.

- 공식소득에 의하면 중국 도시주민의 부동산가격은 소득대비 약 10배 정도로, 만약 대출금을 제외한다면 이는 도시 10% 최고소득층의 총수입액을 초과한다고 함.

- 2008년 상품주택 판매에 근거하면 상품주택 판매액은 2조 1,200억 위안으로 모두 5억 9,300만㎡이고, 주택 1채당 평균 110㎡로 계산하면 515만 채를 판매하였고 1채당 가격은 평균 41만 1,000위안으로 추산됨.

○ 이는 통계수치의 도시주민 연 평균 가정소득의 9배에 달한다고 함.

3) 가정의 자동차 보유

■ 공식소득의 연 평균 가처분소득에 의하면 자동차를 쉽게 구입할 수 없다고 함.

- 중국의 개인자동차 보유량 통계에 근거하면 2008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차와 경차는 총 2,814만 대이고, 이 중 90%를 도시주민이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도시가정의 가정용 자동차 보급률은 12.1%에 달한다고 함.

- 그러나 도시주택 표본추출 통계수치에 의하면 도시가정 100가구당 8.8대의 가정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 이는 전자보다 약 1/3이 적은 수로 주택 표본추출 조사가 상당수 고소득층 가정을 표본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 가정용 자동차의 평균가격이 10만 위안이고, 연 부대비용이 2만 위안¹⁰⁾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20만 위안 이상의 연 소득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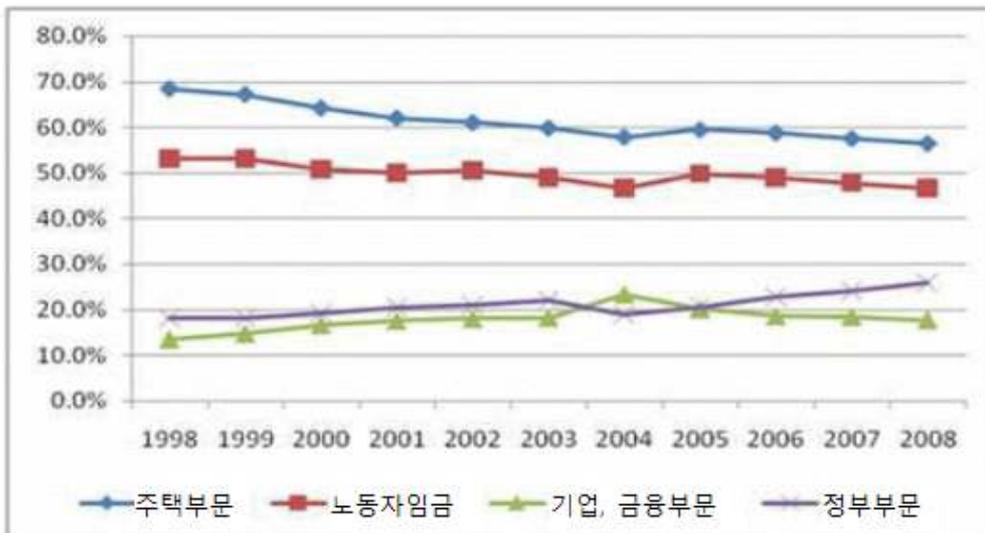
○ 그러나 공식소득에 따르면 고소득층 가정 20%(최고소득층 10%+고소득층 10%)의 연 평균 가처분소득은 6만 위안에서 8만 9,000위안으로, 이는 가정용 자동차 보급률 12.1%에 달할 수 없는 것으로 고소득층 주민의 소득이 저평가되었음을 의미함.

10) 주유, 수리, 보험, 정기검진, 주차와 톨게이트비 등 기타 비용.

3. 회색소득이 중국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 왕샤오루 부원장은 5조 4천억 위안을 회색소득으로 간주함.
- 이는 국가통계국의 '도농주택조사수치와 인구 수치' 에서 밝혔던 2008년 전국 주민 가처분소득 총액(14조 위안)의 44.5%에 상응하는 액수임.
- 국가통계국의 자금흐름표에 의하면 가정부문의 총가처분소득은 17조 9천억 위안임.¹¹⁾ 이는 왕샤오루 부원장이 추산한 23조 2천억 위안보다 5조 4천억 위안 적으며, 이 5조 4천억 위안을 회색소득으로 간주함.
- 국가통계국의 자금흐름표 수치에 따르면 2008년 주민 총가처분소득은 GDP의 56.4%를 차지하고, 그중 노동자의 급여가 14.75조 위안으로 GDP의 46.6%를 차지하며 비노동소득이 GDP의 약 10%를 차지함.
- 기업(금융부문 포함)과 정부의 가처분소득이 각각 17.7%와 25.9%를 차지함.
- 자금흐름표의 수치에 의하면 1998년과 비교하여 2008년 주민의 가처분소득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포인트 하락하였지만 기업(200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과 정부는 각각 4%포인트, 8%포인트 상승하였다고 함(그림 1 참고).

그림 1. 자금흐름표로 본 국민소득분배 구조 변화



자료: 『比较』(2010. 3), 『灰色收入与国民收入分配』.

11) 국가통계국의 자금흐름표와 국가통계국의 조사에 의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자금흐름표가 통계국의 가정조사 자료가 아닌 주로 기업이 제공하는 경제 센서스를 근거로 하기 때문임.

- 왕샤오루 부원장은 회색소득으로 간주한 5조 4천억 위안을 주민 비노동소득에 포함시킨 후 주민 가처분소득을 조정한 결과 소득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함(표 4 참고).
- 조정 전 2008년 주민(가정 부문) 가처분소득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5%였으나 조정 후 66.7%까지 상승함.
- 조정 전 2005~08년 주민 가처분소득은 3.6%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조정 후에는 1.9%포인트 하락함. 이는 주민의 실제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음을 의미함.
- 그러나 오히려 노동자의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정 전의 46.7%보다 낮은 42.3%로 4.4%포인트 하락하였으나 비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조정 전보다 14.5%포인트 상승함.
- 조정 후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주민 가처분소득의 비중은 조정 전 공식소득보다 높았으며, 높은 부분은 비정상적인 소득임. 또한 노동임금의 비중은 오히려 하락하였고, 비노동임금의 비중이 상승함. 특히 고소득층 주민의 소득이 대폭 증가하여 소득격차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 총국민소득 구조 조정: 2005~2008년(당해 연도 국민소득=100)

(단위: 조 위안)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2005년	2008년	2005년	2008년
주택부문	11.06(60.1%)	17.87(56.5%)	13.73(68.6%)	23.24(66.7%)
노동임금	9.28(50.4%)	14.75(46.7%)	9.28(46.4%)	14.75(42.3%)
비노동소득	1.78(9.7%)	3.12(9.9%)	4.45(22.2%)	8.49(24.4%)
기업, 금융부문	3.73(20.3%)	5.61(17.7%)	3.20(16.0%)	4.74(13.6%)
기업부문	3.60(19.6%)	5.20(16.4%)	3.09(15.5%)	4.39(12.6%)
금융부문	0.13(0.7%)	0.41(1.3%)	0.11(0.5%)	0.35(1.0%)
정부부문	3.83(20.8%)	8.20(25.9%)	3.29(16.4%)	6.92(9.9%)
총국민소득(합계)	18.41(101.1%)	31.62(100.2%)	20.01(101.0%)	34.84(100.2%)

주: 1) 2008년 조정 전의 국민소득구조 수치는 2005~2007년 국가통계국 자금흐름표 수치에 근거하여 추산한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추정된 음성소득을 이용하여 조정 후의 수치를 도출한 것임.

2) 국가통계국(2008, 2009), 『중국통계연감』, 「자금흐름표」를 근거로 추산한 것임.

자료: 『比较』(2010. 3), 「灰色收入与国民收入分配」.

〈참고자료〉

- 『比较』, 2010. 3. 「王有捐：也谈城镇居民收入的统计与调查方法」.
『第一财经日报』, 2010. 「王小鲁：不应回避的灰色收入」. (7. 26)
『浙江日报』, 2010. 「官员灰色收入到底有多黑 收入背后有潜规」. (11. 18)

자료 정리: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박사과정 신금미(nhsinny@hotmail.com)